

# 일방로에 불법주정차... '위험 천만'

### 등·하굣길 학생통학 겹쳐 '복새통' 구청 "학부모·경찰 긴밀히 협의 중"



현장출동 1050

#### 조선대 후문 일방로

조선대학교 후문 일방로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안전사고 위험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 주변은 조선대와 살레시오여중·고, 조대여고 등 학교들이 즐비해 학생들이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 동구청 및 주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선대 후문 일방로는(편도 2차선) 대학교 재학생과 주변 중고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다.

일방통행로인 이 지역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학생들 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이곳 일방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조차 설치되지 않아 차도로 걸어나는 학생들이 많았으나, 갓길에 인도를 설치해 주민들과 학생들이 안전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로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차량들로 도로가 마비돼 차도로 학생들이 지나가거나, 이곳 저곳에서 울리는 차량 경적소리로 주변지역이 전정터를 방불케 한다.

이곳 주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온종일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불법주차된 차량들과 사람들 사이에 곡예연하하듯 지나가는 차량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며 "학생들이 위험하게 차량사이를 지나다니고 있는데 경찰 등 행정기관에선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역시 이 곳은 주변에 카페와 밥집 등이 몰려 있어 대표적인 혼잡 구간으로 통한다.

서 모씨(23·여)는 "점심시간 이후가 되면 매 시간 차량이 몰리고, 서로 불법주차하려고 눈치싸움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오후 4시 이후엔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복적이는데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이들을 데리러 온 부모들의 차량 때문에 제대로 지나갈 수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중·고등학교가 밀집된 조선대학교 후문 일방로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안전사고 위험에 학생들이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차량이 특정시간에 집중되다 보니 교통정체현상과 사고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

김 모씨(28·여)는 "최근 주변 카페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와 사고가 날뻔 했다"며 "불법 주차 차량들이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모두 점령하고 있어 보행자 시선을 가로막아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고집했다.

관할구청은 CCTV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일방로 주변에 차량 통행이 많아 오전, 오후로 나눠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를 감시하는 CCTV를 현재 대학교 입구 쪽에서 살레시오여고 버스정류장 쪽으로 이

동시키는 부분을 학교 측에서 요청해 이날 안으로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을 하는 구청과 학부모, 학교 측, 지산파출소 등 경찰들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면서 "사고 위험을 줄여 주변 학생들과 차량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찬 기자

### 교육부, 목포대 총장 임용 거부 공백 장기화...19일 교수회의

교육부가 목포대학교 총장 1순위 후보자 임용을 거부하면서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목포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목포대에서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임용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목포대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통해 후보자 5명 중 1순위인 이성로 건축·토목공학과 교수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이 교수가 2010년 연구비 1,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드러나 자격 논란이 일었다.

정와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따르면 2007년 2월 이후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 고위 공직자 임명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목포대 측은 내부 규정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안 된 사람만 결격자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목포대는 전임 총장의 임기 만료로 지난달부터 감상재 교무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20일 이후까지 다른 위탁선거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목포대 총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 관계자는 "오늘 교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총장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대학 재학생 강사 불인정은 차별"

#### 시민단체 "강사료 책정 다양하게 고려"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대학에서 특강에 나선 재학생을 강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양필수 과목인 '진로설계와 자기 이해'라는 과목을 개설해 재학생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학생이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사비가 아닌 원고료로 시간당 2만 5,000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강에 나선 재학생은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

는 강사이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학력과 재직경력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가 지난해 기준 전국에 71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전국적임을 고려할 때 조속히 강사료 책정 기준이 다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개편을 요구했다.

/황애란 기자

## 광주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증가

#### 사고 발생·부상자 비율 광역시 중 1위

광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비율과 부상자, 부상자 비율도 전국 광역시 중 광주가 1위로 불명예를 차지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방증이다.

광주시가 12일 마련한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관계기관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1년 2천213건에서 2016년 2천951건으로 738건

(33.3%)이 늘었다.

이 기간 어린이 13명이 숨지고 2만1천442명이 다쳤다.

발생 건수는 2012년 2천546건, 2013년 2천568건, 2014년 2천825건, 2015년 2천848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부상자는 사고 건수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1년 2천973명에서 2016년 4천081명으로 1천108명(37.3%)이 늘었다.

1일 평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는 1.4건과 3.4명으로 집계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상 학교 시간(오후 2~6시)이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에서 39.0%가 발생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발생한 사고의 절반가량인 50.7%가 보행 중 일어났으며 사망사고는 차와 사람간 사고가 69.2%로 가장 높았다.

광주시는 이날 자치구와 경찰청, 교통공단, 교통문화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토론했다.

/조기철 기자

### "뭘 봐?" 주먹다툼

노래방 화장실에서 서로 짜러봤다며 주먹다툼 한 4명이 경찰서 행.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최 모씨(29) 외 1명과 김 모씨(31) 외 1명 등 4명은 북구 건국중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 짜러봤다며 시비가 붙어 4명이 주먹다툼을 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술에 취해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며 "음주 단체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일침.

/김종찬 기자

##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 텃밭(10평)
- 마당전체 잔디 (고급파라솔 설치)
- 토지 151평 건물 42평
-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 시세가 1억2천 ◆  
매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 신축원룸매매

산정공원 바로 앞 (코너) 주인집 거주 (공원 전망최고)

1층 상가(2개)  
2층~3층 (원룸12개)  
4층 (최고급 주택)

월세 550만

▶ 매가 9억 5천만

- ① 산정동(1층코너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 매가 8억3천
- ② 월곡동.월곡시장 2분 (원룸12개.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가 8억5천만
- ③ 전대정동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 매가 13억5천만

010-6670-9800

## 법률경매

(대신경매)

1) 서구 매월동 (장례식장) 토 3,302평 건 3,955평 감정가 2백70억 → 최저가 2백70억	4) 서구 금호동 (7층 7층상가) 100평상가(대단지아파트 위치)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2)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 (월수익 5,000만 예상) ▶ 감정가 39억 → 최저가 13억8천	5)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29평) 감정가 3억 → 최저가 3억
3) 광산구 신항동 (유희빌딩) 토 55평, 건 120평 광주보건대 2분 ▶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2억6천7백	6) 효천지구 (1층상가) 감정가 1억4천4백 → 최저가 8억
4) 담양군 삼다리 (무인텔) 토 3319평 건 750평 객실32개(월수익4,500만 예상) ▶ 감정가 39억 → 최저가 13억5천	7) 북구 용봉동 (12층 7층상가)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4억7천
	8) 상무지구 (12층 8층상가) 감정가 8억7천 → 최저가 8억7천
	9) 광산구 월계동 (호반아파트상가)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10) 동구 충장로 (3층상가빌딩)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4억6천
	11) 군산시 오식도동 (4층상가) 토 130평 건 305평. 군산산업단지 내위치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A PT	주택	토지/기타
① 서구 지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	⑦ 북구 중흥동 (주택) 토지 33평 건물 17평 감정 9천만 → 최저 6천3백	⑩ 남구 월산동 (공정) 토 31평 건 39평 감정 1억4,700만 → 최저 1억4,700만
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 (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 1억 7백	⑧ 담양군 무정면 (주택) 토지 65평 건물 37평 감정 8천2백 → 최저 4천9백	⑪ 광산구 월전동 (공정) 토 220평 건 1,250평 감정 65억 → 최저 45억
③ 서구 금호동 풍림부영1차아파트 (24평) 감정 2억5천 → 최저 1억4천3백	⑨ 나주시 금천면 (주택) 토 114평 건물 45평 감정 1억3천 → 최저 7천5백	⑫ 남구 금천면 (주택) 토 114평 건물 45평 감정 1억3천 → 최저 7천5백
④ 서구 동천동 동천마을2단지후원시어 (24평) 감정 2억5천1백 → 최저 1억7천5백	⑫ 나주시 금천면 (주택) 토 114평 건물 45평 감정 1억3천 → 최저 7천5백	⑬ 광산구 박호동 (임대) 13,199평 감정 1억9천 → 최저 4천8백
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빌딩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⑬ 나주공민면 (주택) 토 42평 건물 21평 감정 6천6백 → 최저 4천6백	⑭ 서구 풍림동 (농지) 1,300평 감정 6억9천 → 최저 4억8천

010-6670-9800 010-6670-9800

## 경매교육

(4월초 개강)

-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 ② 실전투자반 (기초+실전-매매까지)
- ③ 무료반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 직원구함!

- 1) 경매 배운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 (무료제공)

010-6670-9800